

자유학기제 관련 쟁점 및 운영의 실제 현황

강재태*, 유영주**

국문초록

내년부터 전국의 절반 정도의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에서 진일보한 자유학년제가 실시된다. 지난 5년간 자유학기제를 운영한 결과 좋은 점도 많았지만 개선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야할 일 또한 산적해 있다. 이에 자유학기제의 쟁점, 과제들을 알아보고, 자유학기제의 운영현황을 검토해 봄으로써, 자유학년제의 안정적 정착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유학기제는 아직 준비되지 않은 제도이다. 일단 학생들이 진로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 한정되어 있으며, 진로프로그램 역시 다양하지 못하다. 또한 입시제도가 바뀌지 않은 현 상황에서 여러 활동들이 입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등의 문제를 지니고 있다.

둘째, 교육부에서는 일선 학교에 자유학기제와 관련하여 상당 부분 자율적 운영권을 주었다고 하나, 일선학교에서의 교육과정이나 자율과정 등의 운영현황이 큰 차이가 없었다. 이는 기존의 관행적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고 싶지 않은 교사들과 학력저하에 불안을 가지고 있는 학부모의 이해가 타협되는 수준에서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자유학기제의 장점은 분명하다. 꼭 필요한 제도라는 것도 확실하다. 대부분의 중학교 구성원들은 자유학기제를 원한다. 그러나 확대 시행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고등학교 경쟁입시제도 존재하며, 학교의 인식도 부족하다. 체험 인프라도 미흡하고, 학생중심·과정중심의 수업을 이끌 수 있는 교사양성도 아직 덜 됐다. 교과서도 창의적인 아이를 육성할 수 있도록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주제어: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 자유학기제의 쟁점, 자유학기제 운영모형

* 경상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교수

** 부산외국어 대학교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으나 학교생활은 결코 즐거움과 만족을 주는 장소라고 할 수 없다. 그들은 장기간의 학교생활을 통해 학교에 ‘길들여지게’ 되고 매사를 학교의 방식으로 이해하고 처리하는 ‘학교형 인간’이 되어 간다. 사회에서 격리되어 현재를 유보당한 채 미래를 위한 준비를 강요받고 있는 존재가 곧 학생들이다.(강재태외, 2014)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의 학교교육은 큰 개혁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개혁은 만악의 근원인 대학입시에서부터 풀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대학입시의 문제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학벌체제와 대학서열화, 더 나아가면 노동시장의 문제와 소득 양극화 등 우리 사회의 모든 모순들과 연계되어 있다. 이런 근본적인 사회문제를 제대로 손대지 못한 상태에서 대학입시만 건드리는 개혁들은 또 다른 모순을 가져올 뿐 아무런 교육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으며, 앞으로도 당분간 이 부분을 고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대학입시를 포함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혁신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 하더라도, 그 동안 대학입시에 종속되어 있거나 혹은 무관심 속에 방치되어왔던 중학교 교육을 정상화시키자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즉, 중학교 교육을 대학입시의 준비를 위한 하위단계로 보지 않고, 그 나이의 발달단계에 맞게 자아정체성을 찾고, 자신의 적성을 탐색해 보고, 각 교과목의 특성에 맞는 본질적인 지적 탐구를 하게 함으로 통해 교육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자는 것이다. 물론 중학교 시기도 대학입시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긴 하지만, 대학입시 개혁이나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비해서는 훨씬 쉬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잘 운영되기만 한다면 우리 교육의 변화를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도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정병오, 2013: 50)

이런 연유에서 지난 박근혜정부에서는 2013년 이래 강력한 정책 의지를 통하여 자유학기제를 도입하였으며, 작년부터 전국의 3,210개 중학교 1학년(일부 2학년) 전부는 한 학기 동안 중간·기말 시험을 치지 않고, 직업 체험, 예술, 과학 실험 등 다양한 활동을 하는 ‘자유학기제’를 경험하고 있다. 더 나아가 지난 11월 6일 교육부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확대, 발전 계획’에서 자유학기제를 확대, 시행해 1,500개교에서는 자유학년제(자유학기제를 1년간 실시하는 제도)를, 500개교에서는 자유학기제와 연계된 연계하기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즉, 자유학기제는 초고속으로 성장한 정책이며, 정권이 바뀌어도 살아남은 몇 안

되는 교육 정책이기도 하다.

지난 4년간 자유학기제를 운영한 결과 좋은 점도 많았지만 개선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야 할 일 또한 산적해 있다. 교육열이 높은 한국적 현실에서 자유학기가 '특목고·명문대 입학'을 위한 선행학습 집중 학기'가 될 것이란 우려가 여전히 팽배하며, 정책의 지속성에 대한 회의도 여전하다. 일선의 교사들은 자유학기제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업무의 과중을 호소한다. 학생들은 '시험 없이 노는 학기'라는 물질 모르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 특히 자유학년제의 도입과 관련하여 시기상조라는 우려가 높다.

자유학기제, 더 나아가 자유학년제가 성공하려면 교육주체들의 이해와 태도 측면, 교육활동의 실태 측면, 인적, 물적 인프라의 지원 환경 측면 등 다방면에서의 주도면밀한 계획과 실천 노력이 필요하다. 즉, 많은 사람들이 자유학기제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확대시행에는 불만의 시선이 많다. 이에 자유학기제의 성과들을 검토해 보고, 자유학기제에 따르는 논쟁점들을 정리해 보며, 자유학기제의 운영모형 대비 실제 운영모습을 비교, 검토해 봄으로써, 자유학기제의 성공적인 안착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해 볼 필요가 있다.

II. 자유학기제의 개념, 대두배경 및 성과

1. 자유학기제의 대두배경 및 질적 성과

1) 자유학기제의 개념 및 대두배경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교육과정 중 한 학기동안 학생들이 중간, 기말고사 등 시험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수업운영을 토론, 실습 등 학생 참여형으로 개선하고 진로탐색활동 등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이다. (교육부, 2013)

우리나라에서 자유학기제를 도입하게 된 배경에는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일까? 교육부의 교원대상 연수자료에 의하면 자유학기제를 도입한 이유는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빠르게 변화하는 인재상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전 세계적으로 미래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상은 창조적으로 생각하는 인재, 다른 분야까지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융합형 인재, 배움을 즐기는 인재, 상상력을 발휘하는 인재이다. 이러한 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새로운 교육방식을 고민하면서 자유학기제를 생각하게 된 것이다.

둘째, 행복한 교육을 하자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201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 학업성취도평가(PISA) 결과 65개국 가운데 5위를 차지한 반면, 2012년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생들의 주관적 행복지수는 OECD 국가 중 가장

낮았다고 보고되고 있다.

셋째, 아이들에게 꿈을 갖게 하자는 것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의 2008년 진로교육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중학생 34.4%가 ‘나는 장래희망이 없다’고 답변했다. 장래희망을 결정하지 못한 이유로는 32%가 ‘장래희망을 찾지 못해서’, 24%는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몰라서’, 13%는 ‘어떤 일을 좋아하는지 몰라서’라고 답변했다. 이는 학생들이 자신에 대한 탐색과 고민의 시간 및 기회가 부족하다는 너무도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이다.

즉, 자유학기제는 우리 중학생들이 지금처럼 부모들이 시켜서 ‘하기 싫은 공부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느껴서 하는 공부’를 위해 아이들의 꿈과 끼를 찾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실시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자유학기제의 주요 질적 성과

자유학기제는 도입 4년만에 전 중학교에서 전면 시행되었고, 내년에는 절반 정도의 중학교에서 자유학년제 실시가 예정되어 있다. 이렇듯 자유학기제의 양적인 성정은 엄청나다. 이런 양적인 성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유학기제가 깨뜨린 우리 교육의 금기들이라고 할 수 있다. 자유학기제는 그 이전 수많은 교육개혁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바꾸어내지 못했던 우리 교육의 많은 금기들을 소리 소문 없이 깨뜨리며, 새로운 교육의 희망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다(김효수, 2015).

첫째, 중간, 기말고사로 대표되는 정기 지필고사를 없앴다. 우리나라 중등 교육에 있어서 중간, 기말이라는 정기 지필고사는 교육의 최종적이며 유일한 목표였다. 그러다 보니 수업 자체가 목적이 되지 못하고 수업은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략해버렸다. 그런데 비록 한 학기이긴 하지만 자유학기제는 중등학교 단계에서 중간, 기말 고사로 대표되는 정기 지필고사를 없앴으로써 정기 지필고사가 우리 교육의 절대적이거나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제는 학생이든 교사든 시험을 위해서 공부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교과가 추구하는 본래적인 목적을 따라 수업을 하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학생의 성취를 다양한 방식으로 기록해주는 형태로 전환을 시키고 있다.

둘째, 국영수로 대표되는 주지 과목의 시수가 축소되고 그 대신 예체능 과목과 체험학습, 선택교과의 시수가 확대되었다. 교과 시수 조정 문제는 각 교과와 그를 둘러싼 학계가 목숨을 걸고 싸우는 전쟁터와 같은 것이었다. 물론 이러한 싸움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국영수로 대표되는 주지과목이었고, 국영수 수업 시수는 일종의 성역이었다. 그런데 자유학기제에서는 아이들의 전인적인 성장과 진로 체험과 탐색을 위해 국영수 중심의 주지과목을 축소하고 입시와 무관한 예체능과 체험학습, 선택교과 시간을 확대한 것이다. 교육과정 편성의 자율권이 지금까지는 국영수 시수 확대의 도구로 활용되어왔던 것을 생각한다면, 이번 국영수 시수 축소와 예체능 및 선택교과의 확대를 이끌어낸 자유학

기제의 힘은 실로 놀라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교사에게 완벽한 교육과정 편성권과 평가권을 주면서 교사별 평가체제를 가져 왔다.

우리나라는 지금껏 교사가 교육과정이 아닌 교과서의 내용을 충실히 전달할 것을 요구 받았으며, 평가도 자신이 가르친 내용과 무관하게 교과서의 내용을 평가해 왔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그동안 교사에게 교육과정 편성권과 평가권을 주고 교사별 평가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꾸준히 되었지만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그런데 자유학기제에서는 정기 지필고사를 없애고 수행평가만 실시하되, 그 결과를 서술식으로 기록하게 함을 통해 기존에 교사를 억누르던 교과서 위주로 다른 교사와 똑같이 수업하고 똑같은 평가를 해야 하는 족쇄를 일순간에 해소해 버렸다. 그렇게 함으로 모든 교사에게 실질적인 교육과정 편성권과 평가권이 주어지고 교사별 평가가 가능하게 되었다.

넷째, 선택교과의 확대로 아이들에게는 실질적인 선택이, 교사들에게는 새로운 교과개설과 교육과정 설계가 가능해졌다. 그동안 아이들은 국가가 제시하는 획일적인 교육과정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만 가능했고 자신의 관심과 흥미에 따른 실질적인 선택은 불가능했다. 그런데 선택교과가 확대됨에 따라 자신의 흥미와 관심, 진로에 따른 교과를 선택하여 심도 깊은 공부를 할 수 있고, 자신의 흥미나 관심, 진로에 따른 교과 개설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그리고 교사들은 아이들의 발달에 맞는 교과를 직접 구상하고 과목을 개설하고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교육과정 전문가로서의 실질적인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이러한 권한은 동시에 의무와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교사로서의 실질적인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게 하고 교사를 성장시키는 건 강한 부담이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교육을 학교에만 가두지 않고 지역사회로 확대하고 지역사회와의 협력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 그동안 우리 학교는 배움을 교실 안의 배움으로 한정해왔다. 그래서 지역사회 가운데서는 섬으로 존재했다. 하지만 자유학기제에서는 직업 혹은 진로 체험을 강조하면서 지역의 연결을 맺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지역사회도 처음에는 지역 아이들의 교육 문제에 대해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다가 조금씩 지역의 아이들에 대한 관심과 책임감을 갖기 시작했다. 그리고 선택교과와 관련해서도 아이들은 배우기를 원하지만, 학교 내 교사가 감당할 수 없는 영역이 많다 보니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역사회의 전문가나 장인들의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다. 이런 부분을 통해 한 아이를 놓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경험들이 조금씩 축적되고 있다.

2. 자유학기제의 주요 쟁점 및 과제들

자유학기제는 심도 깊은 정책 연구에 바탕을 둔 정교한 정책으로 제시된 것이 아니라 전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의 형태로 제시된 것이기 때문에, 이 공약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논란이 많았다. 즉, 각자가 처한 입장에 따라 ‘시험 없는 학기’, ‘꿈을 찾아주는 진로교육 학기’, ‘나를 찾아주는 학기’, ‘다양한 활동을 위한 학기’(황규호, 2013: 3) 등 자유학기제에 대한 이해가 다양했다.

그렇지만 자유학기제를 처음에는 아일랜드의 전환학년제의 개념을 변용한, 진로교육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며, 실시 학년도 중학교 과정이후로 이해하기도 했다. 그러나 자유학기제의 진전에 따라 자유학기제의 개념과 내용을 전환학년제가 아닌 중학교 교육과정의 개혁으로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직도 자유학기제와 관련한 쟁점 및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다. 이 중 쟁점을 1) 예외학기인가? 선도학기인가? 2) 진로 탐색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가? 교육의 개선인가? 3) 어느 학년에 시행해야 하는가? 등의 셋으로 정리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본 후, 자유학기제의 과제들을 고찰해 보겠다*.

1) 자유학기제의 주요 쟁점들

(1) 예외학기인가? vs. 선도학기인가?

자유학기제는 한 학기를 예외적으로 보는 관점과 자유학기의 성과를 중학교 전체, 더 나아가 우리나라 교육계 전반에 전파하자는 선도적 관점을 모두 갖고 있다. 자유학기제가 예외적으로 인식된다면 중학교에서는 6학기 중 1학기라도 학생중심교육을 펼침으로써 학생들에게 자유롭게 숨 쉴 여유를 주자는 생각으로 인식될 수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자유학기제 관련 학자들은 자유학기제가 선도학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교육부도 그런 방향으로 자유학기제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대표적으로 신철균(2015: (248-249))은 자유학기제의 정착 모습을 중학교 한 학기만이 아니라 초, 중, 고를 넘어 대학교까지 포함하고 있다**. 즉, 그는 자유학기제의 정착 모습을 좁은 범위와 넓은 범위로 구분하여, 좁은 범위로의 자유학기제의 정착은 중학교 한 학기의 성공적 운영과 타 학기와의 내용적 연계를 의미하며, 넓은 의미로의 자유학기제 정착은 타 학기나 타 학교급

* 성열관(2015)은 자유학기제와 관련한 쟁점을 1) 예외학기인가? 선도학기인가? 2) 집중할 것인가? 분산할 것인가? 3) 진로탐색인가? 다양한 삶의 체험인가?로 대별한 바 있다.

** 최재천 국립생태원장은 자유학기제의 취지에 동감하지만, 우리 부모들의 수준을 생각해 볼 때, 중학교는 의문시 된다며, 대학교에서 실시하기를 제안한다. 더 나아가 그는 ‘자유취업제’를 제안한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세상의 일거리들을 발굴하고 체험할 기회를 주자는 제안이다(조선일보, 2016. 1. 5).

에 제도적으로 자유학기가 신설되고 확대됨과 동시에 내용이 연계되는 것은 포괄한다고 하였다.

자유학기제의 선도적 개념을 이미 정책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시도도 일어나고 있다. 서울시 교육청은 작년 12월 '2016 서울형 자유학기제 운영계획'을 통해 '내년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시행을 맞아 학생들이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중학교 1학년 교육과정을 토론·실습 등 학생 참여형으로 운영하고, 진로 탐색 등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임을 발표한 바 있다. 즉, 서울시 교육청은 올해 중학교 '1학기 탐색학기-2학기 집중학기' 또는 '1학기 집중학기-2학기 연계학기'의 1년 과정으로 된 자유학기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전북교육청이 올 새 학기부터 초등학교에서는 일제평가 방식의 중간·기말고사를 전면 폐지하고 교사별 평가방식(성장평가제)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밝혔는데, 이런 추세 역시 자유학기제의 선도학기적 역할을 제조명케 한다고 할 수 있다. 충청북도 교육청 역시 내년부터 자유학기제를 1학년 또는 2학년에 1년 과정으로 확대 실시할 방침임을 최근 밝힌 바 있다.

(2) 진로탐색 중심인가? 교육방법의 전반의 개선인가?

자유학기제와 관련된 이 쟁점은 자유학기제의 성격과 관련된다. 자유학기제는 원래 진로중심으로 출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자유학기제의 정책 시행 초기에 ① 교수, 학습방법 개선 중점과 ② 진로체험 활동 중점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연구학교를 모집하긴 하였다. 그러나 자유학기제를 아일랜드의 전환학년제 등 진로체험 중심의 외국사례와 같이 비교 설명하였기에, “자유학기제 = 진로, 직업체험”이라는 인식이 초기에는 대세를 이루었다. 그러나 자유학기제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자유학기제의 핵심이 ‘교수-학습방법의 개선이 중심이 된 교육방법 전반의 변화’여야 한다는 인식전환이 자유학기제 관련 교육학자들이나, 연구시범학교 교사들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물론 진로교육 관련 학자들 중심으로 자유학기제는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여전히 강력히 제기되기도 한다(대표적인 학자가 이지연, 2013a, b이다.). 우리나라 학생들이 겪고 있는 가장 심각한 위기는 동기의 부족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학생들의 학습동기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신의 진로에 대한 꿈을 꾸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래 꿈이 없는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에 대한 동기가 일어 날 수 있겠는가? 그렇기에 그들은 진로중심 자유학기제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은 진로중심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자유학기제에 너무 많은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황매향, 2013)이라고 주장한다. 즉, 자유학기제를 진로교육의 강화라는 연속선상에서 바라보지 않고, ① 모든 학교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② 진로교육에 대한 개념적 혼선 때문에 우려와 공방이 많은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진로중심 자유학기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자유학기제가 주로 실시되는 중학교 1학년 시기는 상대적으로 진로성숙 정도가 낮은 단계여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자유학기제가 우리나라 교육을 전체적으로 개혁하는 선도학기가 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진로교육의 측면에 지나치게 국한해 볼 필요도 없다고 주장한다. 학업자체를 흥미롭게 만드는 것도 학생들의 학업흥미를 높이는 주요한 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똑같은 것을 배운다 해도 좀 더 재미있는 방식으로 체험과 탐구를 통해 능동적으로 배우는 것이 지금처럼 껍질만 얹어서 수동적으로 배우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높을 것이다.

(3) 언제 시행할 것인가?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3년 총 6학기의 과정 중 한 학기만 시행하면 된다*. 그러나 어느 학기를 자유학기제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학기마다 장단점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학부모, 교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부(2015a)의 전국적 설문조사의 결과, 학부모와 교사는 1학년을, 학생은 2학년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 연유로 대다수의 중학교에서는 1학년 1학기 또는 2학기, 또는 2학년 1학기에 자유학기제를 시행한다***. 1학년을 택한 이유는 고등학교 입시부담이 가장 적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2) 자유학기제 관련 논란들

모든 교육개혁의 시도들이 그렇듯 자유학기제 역시 출범 당시부터 많은 비판에 직면하였으며, 시행의 과정에서 여러 쟁점들이 부각된 바 있다. 신철균과 박민정(2015)은 자유학기제의 주요 쟁점을 목적 및 방향, 학력 수준, 사교육, 그리고 지역별 편차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첫째, 목적 및 방향과 관련하여 자유학기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자유학기는 집중적 인

* 지금은 1학년 1학기, 2학기, 2학년 1학기 중에서, 학교의 장이 해당 학교 교원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기를 정함.

** (학부모) 1학년(58.2%)>2학년(30.6%)>3학년(11.1%)

(교사) 1학년(65.7%)>2학년(22.4%)>3학년(8.9%)

(학생) 2학년(41.1%)>1학년(39.1%)>3학년(19.7%)

*** 2015년의 경우 시범학교 중 대부분 1학년에 운영함(96.7%), 2학년 운영은 3.3%에 불과함(교육부, 2015a)

**** 서울시 교육청은 자유학기제 지정 학년을 1학년으로 정하였다. 그 이유는 2017학년도부터 중1 성적을 고교 입시에 반영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강버들(2015: 1321)은 자유학기제 시행 학기와 관련된 자신의 연구에서 2학년 실시를 강력 주장한다. '교사의 입장에서 중1 과정 시행은 업무의 과중이다. 초등학교를 갓 졸업한 중 1과정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지도, 행정 업무에다 자유학기제 수업 준비까지로 인해 실제로 1학년 담임을 기피하는 현상이 생기고 있다. 또한 중학생의 진로발달 단계에서 볼 때도 자유학기제는 2학년에 실시하는 것이 더 적당할 것 같다고 얘기한다.

진로·직업체험을 위한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입시 구조 하의 공백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초반기의 자유학기제는 ‘협의의’ 진로·직업체험교육으로 방향이 흘러가 이러한 비판에 많이 직면했으며, 한 학기만의 단절적 변화이자 진로교육의 단편적 변화를 추구한다는 반대의 논리가 컸다. 한편 찬성입장에서는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입시 교육 폐해를 변화시키고 학생의 꿈과 끼를 계발하여 학생 행복을 증진시키는 목적으로 자유학기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비록 한 학기만 시행하지만, 이는 우리나라 교육 현실을 고려한 선택이며 이를 토대로 다른 학기도 변화를 확대해나가는 진 양지로서 의미가 있다고 주장한다. 학교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수업 및 평가의 혁신을 통해 교육 전반의 변화를 일으키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두번째, 학력수준에 대한 논란인데 학력 저하 논란은 여전히 자유학기제를 반대하는 입장의 주요 논리가 되고 있다. 시험을 폐지하면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공부를 소홀히 하고 ‘노는 학기’로 전락하여 학력이 저하된다고 자유학기제 반대측은 주장한다. 또한 기본교과 시수를 감축하므로 창의성의 기본이 되는 기초 지식이 부족해진다는 논리를 편다. 그러나 자유학기제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지식을 암기하여 점수를 올리는 학력이 아니라 사회성, 자기주도학습능력 등 핵심 역량 중심의 학력관으로의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자유학기제에서 진로체험만을 하고 수업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학생 활동식 수업 및 과정형 평가를 통해 미래 사회에 필요한 ‘진정한 학력’을 키울 수 있다 는 것이다. 또한 진로탐색 활동은 학생들에게 목표의식을 심어주어 학습 동기를 촉진하는 기회가 된다고 주장한다.

세 번째, 사교육에 대한 논란으로서 자유학기제를 시행하면 학교에서 공부를 충분히 시키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은 학원으로 더 몰릴 것이고 사교육비가 더 증대할 것이란 것이 반대측 입장이다. 즉 현재의 입시 체제 하에서 자유학기는 학교에서 놀고, 학원에서 공부하는 체제로 이분화 될 것이라는 논리이다. 한편 사교육 영향이 미비할 것이란 논리로서는 고입에 미반영 되는 학기로서 시험 준비 부담이 감소되기 때문에 사교육 요 구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학교에서 수업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수업과 평가 활동이 정상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학업 결손을 매우러 사교육을 더 받거나 하 지는 않을 것이라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지역별 편차에 대한 논란이다. 자유학기제 반대 측 입장에서는 도시에 비해 농어촌의 체험 인프라가 약하기 때문에 지역별 편차가 더 커질 것이며, 체험 활동을 위한 농어촌의 지역적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편 자유학기제 찬성 입장은 비록 농어촌 지역의 체험 인프라가 약하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체험기관을 확보하여 농어촌의 체험 기회를 확대해 갈 것이며 교육기부 등을 통한 사회적 지원 및 인식 개선으로 지역별 편차를 약화시켜 나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상의 내용을 다음의 <표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1> 자유학기제의 찬반 쟁점

쟁점	찬성	반대
목적 및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시 교육 폐해를 변화시키고 학생 행복을 증진시키는 출발점 - 연속적 변화를 일으키는 진양지 - 수업·평가 혁신 등 교육 전반의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중적인 진로직업체험을 위한 학기는 현행 입시 구조 하의 공백기 - 한 학기만의 단절적 변화 - 진로·직업체험만을 위한 단편적 변화
학력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력 증대 - 핵심 역량 중심의 학력관으로 전환 - 참여식·활동식 수업 및 체험으로 학력증대 - 진로탐색 활동으로 목표의식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력 저하 - 학습량 부족 및 ‘노는 학기’로 전략 - 기본 교과 감축으로 기초지식 부족 - 시험폐지로 학생들의 수업 소극적 참여
사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교육 영향 미비 - 시험준비부담 감소로 사교육 요구 감소 - 기본적인 수업 운영으로 학업 결손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교육 확대 - 사교육에서 보충 욕구 확대 - 입시준비를 위한 사교육 시간으로 전략
지역별 편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별 편차 약화 - 체험기관 확대로 농어촌 체험 기회 확대 - 교육기부 확대 등 사회적 지원, 인식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별 편차 심화 - 농어촌의 체험 인프라 취약 - 농어촌 지역 부담 가중

*자료: 신철균, 박민정(2015). 자유학기제를 경험한 세 학교에 대한 사례 연구. p. 313.

3) 자유학기제의 실행과정상 제시된 문제점

자유학기제 실행의 과정에서도 여러 시행착오들이 드러나고 있으며, 이것들이 자유학기제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는 정책의 지속성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새로운 교육정책들이 시도되었지만, 지속적으로 실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유학기제의 연원은 이미 1970년대 ‘자유학습의 날’, 1990년대 ‘책가방 없는 날’에서 찾을 수 있다. 모두가 하나같이 실패했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이렇게 기존의 정책시행에 대한 경험은 새롭게 행해지는 교육정책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낮은 신뢰도 이어지고 있고, 자유학기제에 대해서도 예외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학기제의 취지는 이해하고 있지만, 정책의 연속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을 감추지 않고 있다.

둘째, 자유학기제를 통한 교수, 학습방법의 변화 및 평가에 대한 부담감이다. 이 문제는 주로 교사들에 의해 제기되는 문제로서, 자유학기제가 학생참여형 수업을 진행하고, 교사들간에 융합, 연계수업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져 하고, 지필고사 이외의 평가를 시행해야 함

* 여러 논문들이 참조되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신철균외(2014). 중학교 자유학기제 정착방안 연구. 교육개발원’이다.

에 따른 준비 부족 및 업무량의 증가와 관련된다. 많은 교사들이 강의식, 주입식 교육 및 지필교사의 의한 양적 평가에 익숙한데, 자유학기제는 새로운 시도를 요구한다. 해당 교사들은 이에 대한 부담이 만만찮다. 새로운 평가실시에 대한 타당성과 객관성 확보에 대한 심리적 부담과 많은 학생을 서술식으로 작성 가입해야 하는 업무적 부담도 많다. 이 문제는 자유학기제가 특정 학년에만 시행됨에 따른 담당교사들의 업무 과중 및 해당 학년지도 기피와도 연결된다.

셋째, 체험인프라 조성문제 역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자유학기제는 교육을 학교라는 물리적 공간을 넘어서 지역사회를 향하도록 하고 있는데, 특히 자율과정 활동인 학생선택 프로그램이나 동아리 활동, 진로탐색활동 등에서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적, 물적 자원은 유용한 교육 인프라가 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체험 인프라 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자유학기제 협업기관 확대, 행정부서간의 업무협약, 지원센터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양적 성과 역시 괄목할 만하다. 그러나 학교차원의 체감도는 낮다. 해당 학교에서는 외부 기관을 섭외하고 체험처를 통한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하고 있다. 중앙부처와 지역교육청의 소개를 통한 학교의 외부기관 활용비율은 10%가 채 안 되는 상황이며, 여전히 개별 학교 차원에서 기관에 요청을 하거나 교사 인맥을 동원하여 섭외하는 상황이다(신철균외, 2014: 129). 이에 따른 교사들의 업무부담 역시 미루어 짐작 할 수 있다.

넷째, 체험처의 양적 확대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가 체험처의 지역 간 편차가 크게 존재하는 것과, 내실화 문제이다. 자유학기제와 관련된 많은 연구들에서 자유학기제를 통해 지역사회로의 교육활동의 유형과 범위가 확장되었는데, 그 만족도는 대도시 지역이 중소도시 및 읍면지역에 비해 높은 것은 나타났다고 하였다. 이것은 읍면지역의 학교들이 체험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읍면지역의 학교들이 활용하고 있는 체험처의 수가 대도시에 비해 평균 10개 이상 적어 편차가 큼을 확인할 수 있다(신철균외, 2014: 129-130).

또한 체험처의 내실화 문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부분의 진로체험이 일회적이고 형식적이라는 진술들이 많다. 이는 체험 인프라 구축의 문제와는 별도로 체험처의 체계적인 체험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체험처를 발굴하기도 쉽지 않지만,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체험처의 발굴은 교사들에게 더운 고된 작업임에 분명하다.

김민희(2017)는 자유학기제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대전제가 세 가지 있다. ‘잘 준비되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인프라가 갖춰진 자유학기제여야 한다,’ 경험의 기회와 폭이 공평해야 한다,’ 입시제도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등이다. 그런데 자유학기제는 이 세 가지 모두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진제를 하나씩 따져 보자. 먼저 ‘준비된 자유학기제인가’에 대해선 대체적으로 부정적이다.

일단 학생들이 진로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 지극히 한정돼 있다. 진로체험 공간 자체가 현재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있거나 유망 직종 위주다. 그것도 ‘체험’이라기보다 ‘일터방문’이나 ‘견학’에 가깝다. 인기 있는 체험공간은 몰리다 보니 대부분 학생이 소질과 무관한 체험을 하고 오게 된다. 한 학기에 2~3차례 있는 희귀한 체험 기회인데 시간낭비라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경험의 기회와 폭이 공평한가’에 대해서는 두말할 것 없다. 자유학기제 시기의 학생들은 특히 양극화가 심하다. 학군에 따라 극명히 갈린다. 학구열이 높은 지역의 학생들에게는 ‘선행학습학기’이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게는 ‘노는 학기’인 경향이 강하다...

‘입시제도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 역시 대답은 ‘노(no)’다. 자유학기제에 하는 활동이 생기부에 고스란히 기록되고, 이 생기부가 고입의 당락을 가르는 중요한 요소이다 보니 활동 하나를 결정할 때에도 입시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늘 ‘이 체험이 생기부에 효과적일까’를 고민하게 된다. 입시제도와 연관된 자유학기제 활동에는 진정한 자유가 없다. 말만 자유이지, 희망진로로 수렴해가는 제한된 자유다... 입시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자유학기제는 큰 힘을 발휘하지 않는다. 잠깐 하고 마는 자유학기제는 불안감을 가중시켜 사교육만 더욱 부추길 수 있다.“

3. 자유학기제의 운영모형 대비 실제 운영 모습

이상에서 자유학기제에 따르는 여러 논쟁점들을 정리해 보았다. 이런 논쟁점들이 아직 존재한다는 것은 자유학기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과제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한 과정으로 이 절에서는 교육부에서 제시한 자유학기제의 운영모형이 실제 중학교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표 2> 공통과정 및 자율과정 구성 예시

교시	요일	월 - 금
1~4 (오전)		<공통과정(기본교과)> (약 20-22 시간) ○ 핵심성취기준 기반 수업 ○ (국어·영어·수학) 문제해결, 의사소통, 토론 등을 중심으로 한 수업 ○ (사회·과학 등) 실험, 실습, 현장체험, 프로젝트 학습 등을 중심으로 한 수업
5~7 (오후)		<자율과정> (약 12-14 시간) ○ 진로탐색 활동 ○ 동아리 활동 ○ 예술·체육 활동 ○ 학생 선택프로그램

1) 교육부 제시 자유학기제 운영 모형

자유학기제 관련 쟁점 및 운영의 실제 현황

교육부에서는 자유학기제 교육과정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과 같은 기본교과로 구성된 ‘공통과정’과 학생의 흥미와 관심사를 기반으로 구성된 ‘자율과정’의 두 영역으로 구분하여 편성, 운영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공통과정은 오전에, 자율과정은 오후에 배치되는데(참조 <표 2>),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를 활용하여 학생의 희망과 관심사에 기반 한 ‘자유학기 활동’을 170시간 이상 편성, 운영한다.

- 학교 여건에 따라 교과(군) 별 배당된 시간의 20% 범위와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의 51시간 범위 내에서 ‘자유학기 활동’을 편성하며(*특정 교과군에서 34시간을 초과하여 ‘자유학기 활동’ 편성 불가),

- 체육, 예술 교과군을 활용하는 경우 ‘예술·체육활동’으로만 편성할 수 있으며, 자유학기에는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예술·체육 활동’으로 편성할 수 있음.

- 다양한 체험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유학기 활동은 오후에 편성, 운영 하는 것을 권장함.

<표 3> 자유학기제 운영 모형

<p>○ <u>진로탐색</u> 중점 모형</p> <p>- (편성) 기본교과(65%)+진로(15%)+기타(20%)</p> <p>- (운영) 진로탐색활동* 위주의 자율과정 편성</p> <p>* 진로모험사, 초청강연, 포트폴리오 제작 활동 현장체험, 직업리서치, 모의창업 등</p>	<p>○ <u>학생 선택프로그램</u> 중점 모형</p> <p>- (편성) 기본교과(57%)+선택(23%)+기타(20%)</p> <p>- (운영) 선택형 프로그램* 위주의 자율과정 편성</p> <p>* 창조적인 글쓰기, 한국의 예술 발견하기, 미디어와 통신, 학교잡지 출판하기, 드라마와 문화, 녹색학교 만들기 등</p>
<p>○ <u>동아리활동</u> 중점 모형</p> <p>- (편성) 기본교과(65%)+동아리(15%)+기타(20%)</p> <p>- (운영) 동아리활동* 위주의 자율과정 편성</p> <p>* 문예토론, 라인댄스, 벽화제작, 과학실험, 웹툰 제작, UCC 제작, 천체관측, 연극, 오케스트라 등</p>	<p>○ <u>예술·체육</u> 중점 모형</p> <p>- (편성) 기본교과(66%)+예·체(15%)+기타(19%)</p> <p>- (운영) 예술·체육활동*위주의 자율과정편성</p> <p>* 국악, 무용, 만화, 사진, 디자인, 축구·농구·배구·배드민턴, 스포츠클럽 등</p>

*자료: 교육부(2013)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험 계획 운영안. p. 5.

자유학기 기간 중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자유학기 운영 모형’(<표 3>)인데, 자율과정은 진로탐색 중점모형, 동아리활동 중점 모형, 예술·체육 중점모형, 학생선택프로그램 중점 모형의 네 가지 모형으로 나누어진다. 학교의 사정에 따라 일부 모형들을 혼합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

2. 자유학기제의 운영 모습

강재태외(2016)는 경남지역의 자유학기제 실시학교 230개교의 연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자유학기제의 운영 모습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첫째, 교육부에서는 일선 학교에 자유학기제와 관련하여 상당 부분 자율적 운영권을 주었으나, 교육과정이나 자율과정 등의 운영 현황뿐만 아니라 건의사항 등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없었다. 즉, 교과교육은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압축하여 운영하되, 자율활동관련 프로그램을 부가적으로 추가한다는 ‘덧붙이기식’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그 결과 모든 학교가 오전에는 공통과정(기본교과)을 편성하였고, 오후에는 자율과정을 운영하고 있었다. 전일제로 자율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한 군데도 없었다.

둘째, 경남지역의 자유학기제 실시 학교들은 지역이나 학교규모에 관계없이 큰 틀에서 보면 거의 똑같은 운영 현황을 보여주고 있었다. 즉, 모든 경남 지역의 학교가 자유학기 프로그램의 운영 시간의 확보를 위해 ‘독립적 운영시간의 확보방안’*을 택했으며, 전일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 역시 전무했다. 또한 다른 과정과의 연계형태에서도 대다수의 학교가 ‘교육과정중심형**’을 택했다. 즉, 자유학기제 운영에 있어서 기존의 (기본) 교과교육에 대해서는 시수 감축이외에는 큰 변화를 주지 않은 상태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점에서 ‘덧붙이기식 접근’이라 할 수 있다.

그 결과 경남지역 자유학기제 실시 중학교의 보편적인 모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자유학기제를 1학년 2학기 한 학기 실시하며, 오전에는 공통과정(기본교과)을 편성하고 오후에는 자율과정을 운영한다. 필수교과의 시수는 23시간 정도 되며, 자율활동에 배분되는 시수는 15시간 정도 된다. 자율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서로의 ‘양해’를 통해 십시일반의 ‘덜어내기식’으로 공통과정의 시수를 모아 자율활동을 운영하며, 자율활동의 운영에서는 기존의 창의적 체험활동을 집중이수형태로 풀어간다. 공통과정의 시수를 조정할 때는 수학, 영어 등의 주요 교과보다는 예술·체육 교과 등 주변교과의 시수를 많이 감축을 하여 주요교과에 대한 학업성취도를 낮추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대신 자율활동에서 예술·체육 활동을 많이 하여

* 자유학기 프로그램 운영시간의 확보방법으로는 ① 교과시간의 감축 및 창체시간의 전환을 통한 방안, ② 정규교육시간의 일부 시간에 자유학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 ③ 교과의 통합(음악과 국어시간의 통합을 통한 뮤지컬 극본 작성과 공연)을 통한 방안들이 있을 수 있다.

** 이지연(2013)은 자유학기제 운영모델을 ‘교육과정(중심)형(A)’, ‘방과후활동연계형(B)’, ‘방학연계형(C)’, ‘B+C통합형’의 넷으로 나누었는데, 교육과정형은주어진 교육과정 내에서만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된 일과수업이 끝나면 자유학기 프로그램도 끝난다.

예술, 체육교과의 시수를 보충토록 한다. 그 결과 자율활동의 중점 모형이 자연스레 예술·체육 중점 모형이 되며, 결과적으로 예술·체육 교과의 수업시간을 오후로 이동 확대한 것과 다름없게 된다.

예술·체육 중점모형을 택한다고 하여 진로탐색활동, 동아리활동, 학생선택활동을 경시해서는 안 되며, 4 개 영역의 활동을 주 5일에 걸쳐 고르게 개설한다. 이상적으로는 자유선택활동을 방과 후나, 주말 또는 방학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으나, 가능하면 정규교육과정 중에 개설하여 학생이나 교사가 모두 소진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진로탐색활동을 할 때는 전일제 체험은 8회 정도, 전문가 초청 횟수는 6회 정도, 진로체험처 수는 12곳 정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모든 교과에 자유학기제의 철학을 도입하려는 ‘딴어쓰기식’ 보다는 교과교육은 그대로 두고 일부 프로그램에만 도입하는 ‘덧 붙이기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편하다고 하여 운영과정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체험처 발굴 및 체험기관과의 협력 부족 문제, 교사의 수업 및 평가 부담 문제, 제반 인적 및 물적 자원의 부족 문제 등은 도시와 농촌의 학교를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당면하는 문제이다. 또한 교사들 간에는 업무 협조의 부족으로 상호 갈등이 생길 수 있으며, 특히 업무담당자는 혼자 격무에 시달려야 할 것을 각오해야 한다.’

셋째, 정부에서는 자유학기제의 운영모형을 지역 및 학교규모별로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으나, 경남지역의 경우 (불행히도) 자유학기제의 평균모형만을 찾을 수 있을 뿐이었다. 이 결과는 기존의 관행적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고 싶지 않은 교사들과 학력저하에 불안을 가지고 있는 학부모의 이해가 타협되는 수준에서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타협책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의 여건을 고려할 때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고등학교 입시제도가 그대로이며, 예산이나 인력의 지원 등 근본적인 여건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그것도 단기간에, 학교교육의 전면적인 혁신을 기대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하여 자유학기제를 통한 우리 교육의 전면적 혁신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제반 여건이 갖추어질 때 까지 기다릴 따름이다.

넷째, 자유학기제를 둘러싼 여러 현실적 여건들을 고려해 보았을 때, 대규모학교에서는 학생선택 프로그램 중점모형 및 동아리활동 중점모형 등을 권장하는 반면, 농촌지역학교는 진로탐색 중점모형을 권장하는 등의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이론적으로는 일견 타당해 보이지만,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도시소재 학교나 농촌소재 학교나, 대규모 학교나 소규모 학교를 막론하고 모두 이상적인 형태의 자유학기제를 지금 당장 실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대신 여러 면에서 불리한 농어촌지역의 학교를 위해 특단의 지원책이 필요하며, 대신 농어촌지역 학교에서는 지역과의 유대관계가 높다는 장점을 살리고, 인접한 학교 간 공동운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불리한 점을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보다 경주해야 한다.

4. 결 론

현재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1학년 1·2학기·2학년 1학기 중 선택)로 운영되는 자유학기제를 1학년 두 학기로 확대하는 자유학년제를 내년부터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자유학기제는 시범 운영 3년 만에 전체 중학교에 적용되더니, 또 2년 만에 기간이 두 배로 늘어나는 등 초고속으로 성장한 정책이다. 정권이 바뀌어도 살아남은 몇 안 되는 교육 정책이기도 하다.

지난 5년간 자유학기제를 운영한 결과 좋은 점도 많았지만 개선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야할 일 또한 산적해 있다. 이에 자유학기제의 쟁점, 과제들을 알아보고, 자유학기제의 운영모형 대비 실제 운영모습을 검토해 봄으로써, 자유학년제의 안정적 정착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할 목적으로 이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다음의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자유학기제는 취지도 좋고, 방향성도 좋다. 다만 이것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대전제가 몇 가지 있다. 잘 준비되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인프라가 갖춰진 자유학기제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자유학기제는 아직 문제가 많다. 아직 많은 논쟁과 운영과 정상의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설부른 확대보다는 아직은 내실을 다지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둘째, 교육부에서는 일선 학교에 자유학기제와 관련하여 상당 부분 자율적 운영권을 주었다고 하나, 일선학교에서의 교육과정이나 자율과정 등의 운영현황이 큰 차이가 없었다. 자유학기제 실시 학교들은 지역이나 학교규모에 관계없이 큰 틀에서 보면 거의 똑같은 운영 현황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는 기존의 관행적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고 싶지 않은 교사들과 학력저하에 불안을 가지고 있는 학부모의 이해가 타협되는 수준에서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자유학기제를 실시하는 일선학교들의 이런 타협책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의 여건을 고려할 때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고등학교 입시제도가 그대로이며, 예산이나 인력의 지원 등 근본적인 여건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그것도 단기간에, 학교교육의 전면적인 혁신을 기대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하여 자유학기제를 통한 우리 교육의 전면적 혁신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제반 여건이 갖추어질 때 까지 기다릴 따름이다.

넷째, 우리 학생들의 가장 심각한 위기인 학습동기의 부족은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대한 꿈을 꾸게 함과 학업자세를 흥미롭게 만드는 방법 등을 통해 개선될 수 있다. 다행히

이런 것들이 자유학기제를 통해 학교 현장에 도입이 되었고, 우리 교육을 질적으로 변화시키는 희망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때 유의해야 할 것이 ‘자기주도성의 딜레마’이다. 우리가 상대의 자기주도성을 높이려 하면 할수록 상대는 타자주도성이 된다. 따라서 자유학기제를 통해 학생이나 학교의 진정한 자기주도성을 이끌어 내려면 ‘믿고 기다리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는 자유학기제의 운영과정에서 단위 학교나 학생들이 언젠가는 알아서 잘할 것이라는 믿음 하에 실패를 용인하고 격려하며, 마냥 기다릴 수 있는가?

참고문헌

- 강재태외(2014). **교육사회학**. 서울: 교육과학사.
- 강재태, 이정희(2016). 경남형 자유학기제 운영모델 개발, 경상남도 교육청.
- 교육부, 공교육진흥과(2013).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험 계획 운영안**. 2013. 5. 28.
- 교육부, 공교육진흥과(2013). **2014년도 중학교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운영 계획(안)**. 2013. 11.
- 교육부, 공교육진흥과(2015).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계획(시안)**. 2015. 8. 6.
- 김효수(2015). 자유학기제가 깨뜨린 한국교육의 금기들. **좋은교사**. 2015년 6월호.
- 성영관(2015).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에 따른 쟁점과 과제. 교육부. **교육정책네트워크** 270호. 2015. 12. 16.
- 신철균외(2014). **중학교 자유학기제 정착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RR 2014-17.
- 이지연(2013a). 성공적인 자유학기제 운영방안: 진로탐색 중심 접근.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진로탐색을 위한 자유학기제 방향과 과제**. 2013년(2013. 3. 27). 제1회 진로교육포럼 자료집.
- _____ (2013b). 자유학기제 운영 방안: 교과 통합 진로교육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과교육학회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2013(7). 23-51.
- 정병오(2013). 한국형 ‘자유학기제’, 해외 사례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한국진로교육학회. **꿈과 끼를 키워주는 진로교육, 자유학기제를 말한다. 제 36차 한국 진로교육학회 춘계 학술대회(2013. 5. 10) 자료집**.
- 황규호(2013). 자유학기제를 위한 교육과정 설계 방안 탐색. 한국교육개발원. **자유학기제를 위한 교육과정 설계방안 탐색**. 제1차 자유학기제 포럼(2013. 9. 26) 자료집.

인터넷 자료

- 김민희(2017. 11. 15). 주간조선 2482호.
- 최재천(2015). 자유취업제. **조선일보** 2016년 1월 5일.

Abstract

Issues and Operation Concerning the Free Semester System

Kang, JaeTae

Yoo, YoungJu

The past five years of 'free-semester' has resulted in many good things, but there is a lot of work to be done to improve and move toward the right direc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esent basic materials necessary for the stable settlement of the free-learning system by examining the issues and tasks of the free-term system and reviewing the operation status of the free-term system.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

First, the free school term system is not ready yet. Once students can experience paths, the programs are limited. There are also problems such as the lack of freedom of entrance to various kinds of activities in the current situation when the admission system has not changed.

Second, the Ministry of Education gave schools a considerable amount of autonomy over the free-learning system, but the current status of education or the operation of courses in schools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This could be attributed to the fact that teachers who did not want to deviate much from the traditional practice and parents who were anxious about academic background degradation were operating at a compromise.

As a result, the following conclusions can be concluded : The merit of the free-learning offer is clear. It is also clear that it is a necessary map. Most middle school members want a free semester. However, they are skeptical of the expansion. High school competitive entrance system exists, and school recognition is insufficient. The experience infrastructure is not enough, and there is not enough teachers training to lead the student-centered and process-centered classes. In addition, textbooks should be drastically reformed to foster creative children.

Key words : free-semester system, operating model of free semester system

중등교육연구 제29집 (2017년), pp. 27-46.

논문 투고일: 2017. 11. 25

심사 완료일: 2017. 12. 08

게재 결정일: 2017. 12. 10